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기(白頭山地方産蝶類採集記)

석주명

(Butterflies collected in the Paiktusan Region, Korea. By D. M. Seok)

작년 여름(1933) 나는 L. H. Snyder씨의 주선으로 미국 하버드대 비교동물학교실의 보조를 받아 백두산지방의 동물표본채집을 했다. 두 조로 나뉘, 조복성씨는 장채순군과 함께 부전령(赴戰嶺) 및 관모산(冠帽山)에서, 나는 우종인 군과 함께 백두산 방면으로 가서 주로 접류와 갑충류를 채집하고, 갑충류는 조복성 씨가, 접류는 내가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차적으로 파충류, 양서류도 채집했는데 거기에도 새로운 사실이 두 세가지 있어서 기회가 되면 발표할 생각이다.

여기서는 참고로 내 채집일기 중 접류에 관한 부분만을 골라내어 두 조의 채집품 접류의 목록을 만들어 월일 및 채집지(Figs. 1-2참조)를 부기하겠다. 또한 내 학생들(송도고보)의 長津(장진)에서의 채집품도 포함하여 광범위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목록을 다루기로 한다. 목록 중 신종, 미기록종, 학명변경 및 기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창립 25주년 기념 논문집(1934년 중에 발간될 예정) 중 줄저 '조선의 접류'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또한 양쪽 조의 채집에 따른 갑충류에 관한 것은 언젠가 조복성씨가 발표할 예정이다.

함경북도 무산(茂山)과 함경남도 혜산진(惠山鎭) 양 수비대는 국경수비의 의미로 연합하여 매해 한 번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백두산정상까지 무장 행군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유지들도 보호 견학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백두산 조는 미리 무산과 혜산진 양 수비대에 의뢰한 후 무산에서 올라 혜산진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까지 제작하여 7월 21일 오후 1시 44분 개성을 출발했다. 출발할 때, 백두산견학을 위해 집을 나서는 동생 석주일도 동행하여 마지막까지 행동을 같이 했기에 백두산 채집조는 전부 합쳐 3명이었다.

7월 22일(토) 맑은 뒤 가랑비

아침 9시 40분쯤 고무산역에서 내려 무산행 경원철도로 갈아탈 때부터 동행한 두 사람이 매 역마다 하차하거나 또는 기차 창문에서 포충망을 휘둘러 채집한 결과는 매우 좋았다. 처음에는 범규에도 걸리기에 약간 주저하고 꺼렸지만, 그곳 부근에서는 곤충채집이 신기하고 또 주로 목재운반을 위한 기차였기에 항상 혼잡하지 않아서인지 차장마저도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줘 두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채집한 결과는 고무산에서 수평(輸坪), 폐무산, 차령을 지나 금패(金佩)에 오기까지 백 수십 개에 달하고, 나는 차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러한 좋은 성적은 기차의 속도가 느리고 부근의 나비상이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우리들 셋은 결국 지형이 잘 보이는 금패역에서 하차하여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채집하기로 했다. 금패역 부근에는 역과 관사 하나 외에는 인가가 한 채도 없어 그 부근 채집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먼저 점심을 먹고 채집을 시작하여 비를 맞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2시간 동안 셋이서 약

300개체 가까이 채집하여 바로 포장을 마치고 때마침 도착한 기차를 타고 다시 무산을 향했다. 그리고 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비가 와서 채집은 거의 할 수가 없었다.

p. 260 지도

Fig. 1. 조복성 및 장재순씨의 행로

p. 261 지도

Fig. 2. 우종인씨 및 저자의 행로

7월 23일(일) 맑음

오전 중에 두만강 유역의 조금 높은 언덕에서 3시간 정도 채집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중국부전나비(オカオビシジミ) ♂ 1마리와 ♀ 2마리를 채집한 일이었다. 사실 이 종을 처음으로 채집했을 때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중에 정리할 때 Seitz의 *Macrolep.*에 따르면 틀림없이 작은주홍부전나비(*Lycaena chinensis*)의 원형으로, 더구나 미기록종인 듯하여 학명을 따서 시나시지미(シナシジミ)라는 일본명을 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Zephyrus*지를 조사할 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미 스기타니 이와히코(杉谷 岩彦)씨가 (본지, vol. v, p.15) 발표한 것임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편달을 받았다. 얘기가 잠시 샅길로 빠진 듯 하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날 오후에는 다음 날 아침 출발준비의 일환으로 무산수비대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셋 모두 2만으로 편입되었다.

7월 24일(월) 흐린 뒤 가랑비

오늘 도정(道程)은 무산 삼장(三長)사이에서 만주 측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흐리더니 10시반 쯤부터 가랑비가 내려 채집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7월 25일(화) 맑음

오늘은 삼장 농사동(農事洞) 사이에서 조선측을 지나갔다. 부근 접상도 풍부하고 종일 날씨가 좋아서 맘껏 고산성 나비의 채집을 할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를 풍부하게 채집한 것으로 우군 혼자서 30마리 가까이 본종을 채집했다. 여기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어리세줄나비(*Neptis raddei*)♀ 한 마리를 채집한 것이다. 내가 여태껏 이 종만큼 헛갈린 적이 없을 정도로 인상 깊게 남아있다. 딱 삼장농사동 중간 정도에 관목이 이어진 곳에서 몇 마리의 눈나비(ミヤマシロテフ)와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것을 어지간히 쫓아간 후에 겨우 잡을 수 있었지만,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처음부터 파손되어 있어서 눈나비의 이형이라도 되는가 하고 생각한 나머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정리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시맥이 확실히 달라 *Aporia*가 아니라 *Diagora*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계속했더니 색채는 *Diagora*를, 시맥은 *Neptis*와 일치했기 때문에 결국 양 속의 중간형으로 새로운 속(屬)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나비에 더군다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나비에 새삼스럽게 새로운 속 설립에 해당하는 종을 채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틀림없이 양 속의 중간형이었다. 외관은 *Diagora*, 시맥은 *Neptis*(색채, 시맥 외의 사항은 전부 생략)와 일치하므로 마침내 *Diagoroida*라는 새로운 속을 설립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나 도이 히로노부(土居寛暢)씨의 서간으로 어리세줄나비(スヂグロミスヂ)라는 것이 일찍이 조선에서도 한번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박사가 월정사에서 채집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당황해서 다시 조사해 보았더니 Seitz의 ‘*Macrolepidoptera*’에도 게재되어 있는 어리세줄나비(*Neptis raddei*)임에 틀림없었다.

나비사진(2장)

Fig. 3. Neptis raddei Bremer(어리세줄나비) スヂグロミスヂ
우, 상, 결면, 아래, 뒷면

7월 26일(수) 맑음

도정(道程)은 농사동에서 무봉 사이로 채집은 좋은 성적이었다. 산지옥나비(べにひかげ)는 무봉에 도착하기 2리 앞에서부터 두세 마리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영생활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야영지에 도착하여 야영작업을 하는 동시에 채집품의 정리(날짜, 채집지 기입 등)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들 세 명이 노력하는 것을 본 군인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여행 중 맑은 날에는 셋이 평균 500마리는 채집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포획하기 때문에 우리들 세 명에게는 휴식시간조차 없을 정도였다. 함께 간 두 명은 아직 소년인 중학생들이었지만 운동선수인 만큼 각자 나를 뛰어넘는 능력을 올려줬다.

7월 27일(목) 맑음

무봉에서 신무성까지의 도정(道程)으로 이 날의 채집품 중에 수위를 차지한 것은 산지옥나비(べにヒカゲ)였다.

7월 28일(금) 비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로 텐트가 젖어 잠을 잘 못 잤다. 이로 인해 적어도 내 몸에선 고장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비에 젖은 텐트를 정리하고 빗속을 행진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도중에 한 개의 채집도 못할 때. 예정지인 무두봉에 도착할 때까지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 꼴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채집품만은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의 다행이었다. 예정했던 야영지에 도착하긴 했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바람도 불어 불이 불지 않는다. 자작나무 껍질이어도 등산가들 말처럼 쉽게 붙어주지 않는다.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동행한 반의 친구는 쇠약해져서 군의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때의 명예직 반장은 정말 싫어진다. 그때는 채집도구 등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침내 그곳에서 1개의 포충망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돌아오는 날까지 셋이서 두 개의 포충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 지금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총동원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불을 일으키고 텐트를 세워 노숙 준비를 한다.

7월 29일(토) 비

오늘도 비가 계속되어 행진은 중지하기로 함. 오후 3시쯤 겨우 비가 멈춤. 우종인군이 부근에 버려져 있던 포충망을 주워 수선하고 산지옥나비와 높은산지옥나비(アムールクモマベニヒカゲ)를 채집. 사실 채집이라고는 해도 풀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7월 30일(일) 맑음

도정(道程)은 무두봉에서 백두산까지. 쾌청한 날씨로 이틀이나 채집을 못했던 우리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었다. 무두봉을 나와 1리 정도 되는 곳에서 이미 수목대는 더할 나위 없는 초원대가 나타나 여기저기에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가 팔랑팔랑 날고 있다. 정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나고 우리들의 채집개체수는 다음 날 뭇까지 합쳐 150여

마리에 이르렀다. 국경정계비터를 지나 백두산기슭에 텐트 장소를 정하고 가져온 물품, 예를 들면 야영도구나 연료(마르지 않은 통나무)를 내려놓고 곧바로 정상으로 향했다. 정상에서 나중에 도착한 해산진대와 합쳐졌다. 정상에서 볼 수 있었던 종류는 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f. dulcinea)), 썩기풀나비(コヒヲドシテフ), 공작나비(クジャクテフ), 은판대기(シロモンコムラサキ), 꼬마부전나비(ハッパシジミ), 사향제비나비(ジャカウアゲハ) 등으로 최정상 바위 위에서 약간 손상된 사향제비나비를 채집하는 것은 기념할만한 일이었다. 더구나 기분 좋은 일은 우종인군이 외륜산 위에서 포충망을 휘둘러 고공비행 중인 꼬마부전나비(ハッパシジミ) 한 마리를 포획하여, 동행했던 사람들을 크게 흥분시켰던 것이었다. 채집한 개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로 정상 외륜산 부근에서 수천이라고 하는 개체가 짙은 안개의 습격으로 인해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농무를 이겨내지 못한 개체는 낙하하여 천지의 수면에 떠올라 물결치는 대로 떠밀려가 물가에는 흰색 나비의 사체가 겹겹이 몇 줄로 쌓여 있어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P265 사진

Fig. 4. 백두산 정상 천지. 서 있는 우종인부터 김숙보, 저자, 석주일 순

천지(화구호)로 내려갔던 32명은 늦어져서 어둠 속을 외륜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32명이 열을 지어 화산 자갈의 퇴적물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하기에 굴러 떨어지는 자갈 때문에 위험한 일은 먼저 상상만으로는 어렵다. 굴러 떨어지는 자갈 때문에 내 어깨에 매고 있었던 투구벌레를 채집하기 위한 독병이 완전히 없어진 것 또한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은 길을 잃어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30분에 내려갔던 곳을 3시간이나 걸렸던 적도 있었다. 낙오하게 된 노인 한 분 탓도 있긴 했지만, 저녁을 먹고 텐트에 들어가는 것이 밤 1시 조금 넘음.

7월 31일(월) 맑음

도정(道程)은 백두산에서 무두봉을 지나 신무장까지로 즉, 올라갈 때의 이틀간의 도정이 다. 내려올 때 오전 10시경 무두봉까지 가는 도중에 이름을 모르는꽃이끼와 같은 지의(地衣) 위에 군집을 이루어 정지해 있는 산지옥나비(ベニヒカゲ)는 백수 십 마리나 되는 것 같아 조금 기이한 광경이었기에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채집에 그치고 말았다. 한 번 휘두른 포충망에 54마리나 들어 있었으니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올 때 채집할 수 없었던 무두봉과 신무성 사이의 채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공작나비를 많이 채집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8월 1일(화) 맑음

아침 우리들 3명은 무산대(茂山隊)에 이별을 고하고 해산진대(惠山鎮隊)에 편입, 신무성에서 약 1리 정도되는 곳에서 양쪽 부대와 동시에 이별의 건배를 했다. 저녁 포대리(胞胎里)에 도착할 때까지 많이 잡힌 것은 역시 산지옥나비였고, 기타 산꼬마부전나비(ミイケシジミ)도 어느 정도 채집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는 인가에 머물 수 있고, 게다가 우리들 일행은 주재소의 관사 1실을 제공받아 편리하게 지낼 수 있었다.

8월 2일(수) 맑음

이 날 도정은 포대리에서 보천보(普天堡)까지 모두 풍부하게 채집할 수 있었다. 보천보 가까이에 와서 황세줄나비(オホキイロミスヂ)를 꽤 많이 잡아 기분이 좋았다. 이 날의 채집

성적이 좋았던 탓에 마음이 끌린데다 지형도 좋았고 이제 안전지대이기도 했기에 우리들 셋은 수비대에 이별을 고하고 개인행동을 개시했다.

8월 3일(목) 맑은 뒤 가랑비

큰 기대를 하고 보천보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지만, 아침에 조금 맑았을 뿐이어서 채집 결과는 기대의 3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8월 4일(금) 비 온 뒤 약간 맑음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오전 11시쯤 나가보았지만 해산진에 도착할 때까지 채집은 거의 할 수 없었다.

8월 5일(토) 맑음

오전 중에는 해산진 시가 부근의 약간 높은 언덕에서 채집을 시도, 약간 다른 모양의 팔랑나비(セセリ) 1쌍을 채집했다. 나중에 조사해서 신중이면 이 곳을 기념해서 hesanzina가 될 종명을 붙였다. 오후 반대편 쪽 장백부(長白府)를 견학하러 가서 나비로서는 산네발나비(シータテハ) 1마리를 채집한 것이 장백부의 기념이다.

8월 6일(일) 맑은 뒤 가랑비

아침에 자전거로 갑산으로 갔다. 정오부터 약 2시간 갑산 시가 근처 산에서 채집을 했다. 우중인군이 갑자기 벌의 습격을 받아 몸에 이상을 호소해 채집중지

8월 7일(월) 맑음

남은 한 명이 아침에 약 한 시간 동안 채집. 불완전한 먹부전나비(クロツバメシジミ) 한 마리가 잡혀 기뻐다. 우군도 거의 회복이 되어 오전 10시반 쯤 차로 응덕령(鷹德嶺)정상까지 와서 하차. 거기서 풍산까지 내리막길을 채집하면서 걸음. 역시 많은 건 산지옥나비(ベニヒカゲ)류

8월 8일(화) 구름 뒤 비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모처럼의 기회이기에 에구치 미쓰구(江口貢)씨의 소개로 농시험장(農試分場)의 시바(柴)씨와 대덕산 채집을 시도했으나 돌아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나, 지난 번 무두봉 사건과 비슷한 일을 반복한 셈이었다. 어쨌든 인가 근처라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비를 만나기 직전에 우군이 처음으로 대덕산기슭에서 신선나비를 한 마리 채집했던 일이다.

8월 9일(수) 맑음

아침에 풍산을 출발해서 차로 후상령(厚嶂嶺)까지 와 하차. 내리막길을 채집하면서 직동(直洞)까지 와서 다음 차를 얻어 타 북청까지 왔다.

8월 10일(목) 맑음

오전 2시 37분 신북청발 특급으로 경성까지 직행. 역을 나오던 관모산 팀의 조씨와 장씨를 만나 저녁을 함께 하고 그날 밤 돌아왔다.

이처럼 21일간의 여행을 대체로 무난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도중에 우리들 셋의 목숨을 보증하고 채집에 여러 모로 도와주신 무산, 해산진 수비대원분들, 금패

에서 채집할 때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 주셨던 역무원 분들, 그리고 대덕산 채집에 편의를 제공해 주신 풍산 농시분장 에구치씨, 시바씨에게 감사말씀 전하며 이 일기를 마친다.

(1934. Ⅱ. 25. 개성에서)